



대한인쇄문화협회 신임 회장 홍우동 동국전산(주) 시장 선출

대한인쇄문화협회는 2월18일 오후 2시 명동소재 서울YWCA 강당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홍우동 동국전산(주) 대표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임원 선출에 앞서 민재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3년의 임기를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새 회장님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미래를 활기차게 열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또 “회장으

로 재임하는 동안 인쇄문화회관을 증축하여 인쇄역사문화관을 조성하고 월간 프린팅코리아의 창간과 프랑크푸르트와 일본 도서전에 한국인쇄관을 꾸며 수출 증진과 우리나라의 인쇄문화를 알릴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업들이었다”면서 거듭 감사를 표했다.

홍우동 신임 회장은 소감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해 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원들과 인쇄인들의 기대

에 부응하고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 상정의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월간 프린팅코리아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호 광익인쇄사 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모범 근로자로 선정된 제이엠아이(주) 신운섭 기장 등 31명에게 협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사진위 :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된 홍우동 회장이 민재기 회장(왼쪽), 박충일 명예회장(오른쪽)과 함께 회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사진왼쪽 : 민재기 회장의 개회사 모습
사진오른쪽 : 수상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협회장상 수상자 명단

△신운섭(제이엠아이 기장) △조옥제(미성아트 주입) △하준태(삼성프린팅 대리) △강승관(대화특수인쇄사 사원) △윤기만(벽호문화사 팀장) △박휘경(타라티피에스 계장) △백순주(명성칼라 사원) △홍창식(모아인쇄 기장) △정동천(조광출판인쇄 기장) △김선태(갑우문화사 차장) △박용인(한국전산홈 주입) △정형진(한아문화 차장) △김기태(은성프린터스 팀장) △윤장원(상현원색 부장) △황윤호(경일장부 사원) △송홍규(홍지원 차장) △정영철(평화당인쇄 팀장) △최석준(서진인쇄사 과장) △김운동(대원인쇄 대리) △이병근(한성칼라 과장) △이선홍(상문상사 대리) △양운철(반일문화인쇄사 부장) △김상규(제일칼라프로세스 사원) △배기성(한국금박공업 대리) △탁용진(열림실업 기장) △이정화(성우애드컴 대리) △김영배(한국돛판폼 대리) △백승현(정원전산홈 대리) △김덕규(동아인업 기장) △박상기(한일종합인쇄 부장) △김성줄(반도인쇄사 대표)



사진 위 : 서울YWCA강당을 메운 회원들 모습
 사진 아래 : 이영호 본지편집위원장(광익인쇄사 대표)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민재기 회장

홍우동 신임 회장은



홍우동 신임 회장은 1941년 생으로 대한교과서 공장장, 교학사 상무이사, 신홍인쇄(주) 부사장을 거쳐 1986년 동국전산(주) 대표이사에 취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홍우서체연구소 소장, 인쇄문화협회 이사 및 부회장, 인쇄연합회 이사, 서울조합 이사 및 원가계산위원장, 인쇄연구소 소장 및 부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편집과 인쇄', '편집에서 제작까지',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저서가 있다.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등에 출강했으며 문공부장관상, 인쇄문화상, 출판학회상, 대한민국문화훈장, 서울신문화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홍우동 신임 회장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10대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시대에 맞는 '인쇄강령'을 새롭게 제정하여 땅에 떨어진 인쇄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2. 인쇄단체간, 인쇄단체장간의 대 화합을 위하여 정기적 모임을 추진하여, 다 같이 힘을 모아 대 정부, 대 정당, 대 국제관계의 개선을 실현하겠습니다.
3. 재단법인 대한인쇄연구소와 절대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미래 인쇄문화 산업에 대한 10년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위하여 정부 지원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4. 인쇄사문화관을 박물관식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금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인쇄기자재를 최대한 확보하고, 명실공히 인쇄종주국에 걸맞도록 '인쇄의 역사', '인쇄문화', '인쇄교육'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5. 정부와 협력하여 대중 전파력을 가진 유명 연예인을 '직지'와 '인쇄문화'의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각종 국내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 정부로부터 보다 나은 지원과 보호를 받기 위해 정부 조직에 인쇄출판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구성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7. 인쇄문화의 날에 정부의 훈포장도 확대 시행토록 하여 이 날을 명실공히 인쇄인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한편, 업계 대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8. 대한인쇄연구소에서 준비하던 '인쇄물 품질인증'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여 인쇄물 품질제고와 인쇄수출 및 인쇄시장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9. '프린팅코리아'와 '인쇄신문'을 새롭게 개편하고, 협회가 진정한 인쇄문화인, 인쇄문화산업의 요람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10. 대한인쇄문화협회와 대한인쇄연구소 두 단체가 공동체적으로 운영되면서, 각각 독자 생존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